



빠른 스피드... 화려한 묘기

설원에서 펼치는 서커스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10 스노보드

스피드 '알파인'·기술 '프리스타일'
5가지 세부종목, 금메달 10개 경합

'눈 위의 서핑'으로 불리는 스노보드는 빠른 스피드에 화려한 묘기가 접목된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의 대표 주자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스노보드는 더 역동적인 스포츠를 원했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다. 스노보드가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노보드 부문에는 1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하프파이프, 평행대회전, 빅에어, 슬로프스타일, 크로스 등 5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수들은 10개 금메달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스노보드는 스피드를 겨루는 알파인(평행대회전·크로스)과 화려한 기술로 순위가 결정되는 프리스타일(하프파이프·슬로프스타일·빅에어)로 나눌 수 있다.

평행대회전은 선수 두 명이 동시에 출발한다. 평행하게 설치된 레드·블루 기문을 통과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승리한다. 크로스는 4~6명씩 짜인 조에서 뱅크, 롤러, 스라인, 점프 등 다양한 지형지물 속 코스를 달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상위 2, 3명을 선발한다.

하프파이프는 반으로 자른듯한 원통형 슬로프에서 경기를 펼치며, 점프와 공중회전 등 고난도 기술로 순위를 가린다.

채점은 5명의 심판이 한다. 심판들은 기본동작, 회전, 기술난이도, 착지, 테크닉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겨 합산한다.

'설원의 서커스'로 불리는 빅에어는 평창 올림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종목이다. 빅에어는 높이 30m, 길이 100m 정도의 점프대로 도약해 플립, 회전 등의 공중 묘기로 예술성을 평가받는다.

레이, 테이블, 박스, 윙 등 다양한 기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높이, 회전, 테크닉, 난이도를 채점하는 종목이다.

한국 대표로는 이상호(33) 선수가 사상 첫 설상 종목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호는 지난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회전과 대회전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대선후보 암살 용의자'로 설 극장가 접수?

열일하는 강동원의 특별한 도주

〈열심히 일〉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7년전 원작보고 먼저 영화 제안
음모에 휘말린 평범한 시민 역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정서 녹여

영화 '1987'의 히든카드로 열연을 펼친 강동원이 '골든슬럼버'에서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관객을 만난다. '검사와전' '마스터' '1987' 등 매 작품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구가 해온 강동원이 설날 또 한번의 변신을 거듭한다.

17일 오전 CGV압구정에서는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노동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 김성균, 김의성, 김대명이 참석했다.

영화 '골든슬럼버'는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자의 도주극을 그린 작품. 강동원의 차기작이자 김의성, 한효주, 김성균, 김대명까지 골든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강동원은 "마스터"에서 형사를 연기할 때는 이번 작품만큼 많이 뛰지 않았다. 확실히 쫓기는 입장이 많이 뛰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강동원은 모범시민에서 하루아침에 대통령 후보 암살 용의자가 된 건우 역을 맡았다. 그는 "극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주인공이다. 관객분들이 최대한 건우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전했다.

7년 전부터 '골든슬럼버' 기획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사카 코타로 작가의 소설을 접하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 손진영 기자

고,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면 재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 가치가 있었고요."

노 감독 역시 "음모에 휘말린 주인공이 특별한 사람(히어로)이 아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점이 우리 영화의 장점이다. '누구나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 건우가 도주중에 느끼는 감정들을 관객도 느낄 수 있게 연출에 중점을 뒀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이어 "원작이 갖고 있는 '소시민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친구들'이라는 점은 살리되, 한국의 현상황과 정서를 녹였다"고 원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화는 비틀즈의 명곡 '골든슬럼버'의 감성적 선율과 긴박한 암살 사건, 상반된 두 이미지의 충돌로 도입부부터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기에故 신해철의 '그대에게' '힘을내'를 OST

로 삽입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서를 극대화한다.

강동원은 "골든슬럼버"는 폴 매카트니가 비틀즈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만든 곡으로 알려졌다. 주인공 건우와 친구들이 어린 시절 함께 들던 곡이라는 영화적 설정이 있는데 원곡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만족도를 드러냈다.

"원작이 있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부담이 됐던 건 아니에요. 소설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잘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골든슬럼버'는 극장을 나가실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극 중 건우를 믿는 고등학교 친구들(김대명, 김성균, 한효주)과 건우의 조력자(김의성)의 활약도 기대감을 높인다.

실제로 동갑내기인 강동원, 김대명, 김성균은 촬영장에서 호흡의 호흡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원은 '늑대의 유혹' 이후 동갑내기 배우와 촬영은 오랜만이였다고 미소지었다.

'골든슬럼버'는 국가 조직에 의해 계획된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이라는 극적 사건을 토대로 하지만, 영화의 한 축에는 보통의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할법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들을 그림으로써 영화적 재미와 현실적 공감대의 균형을 맞춘다.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영웅으로, 혹은 암살범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에 맞서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 안에 감성과 온기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2월 14일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왼쪽부터)김의성, 강동원, 노동석 감독, 김대명, 김성균. 영화 '골든슬럼버' 제작발표회.

/ 손진영 기자 son@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뉴스스탠드 'MY뉴스' 구독 설정 방법

- 1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 전체연문사 리스트보기(=) 클릭 > '종합/경제'에서 화살표를 눌러 '메트로' 찾아 구독 버튼 클릭!
- 2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종합/경제' 클릭 > 화살표를 눌러 '메트로' 찾기 > 구독하기 버튼 누르면 끝!
- 3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스탠드 클릭 > 상단 '설정' 클릭 > '종합/경제' 클릭 > '메트로' 선택 후 '선택완료' 버튼 누르면 끝!

오늘의 날씨

1월 18일
음력 : 12월 2일

수도권 날씨
0 ~ 5°C

운동 지수: 4/5
빨래 지수: 4/5
세차 지수: 4/5
외출 지수: 4/5

지역별 날씨: 연천 -3/5, 동두천 -2/6, 가평 -3/5, 파주 -4/4, 서울 0/5, 양평 -1/6, 인천 0/3, 수원 -1/5, 용인 -1/5, 평택 -2/6, 백령도 0/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삼일절인 3월 1일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로 9개월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기간에는 51일간 중단된다.
-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018시즌 선수단 연봉 협상을 마쳤다. 고과 1위 포수 유강남이 지난해 1억원보다 8500만원 오른 1억8500만원에 계약하며 팀 내 주요 선수 중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으며 양석환, 임찬규 등은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 ▲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발표한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2위에 올랐다. 1위에는 팀 동료 해리 케인이 올랐다.
- ▲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인 웨트컴 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광주FC가 성남FC에서 뛰던 베테랑 수비수 김태윤을 영입했다.
- ▲ 프로축구 울산 현대에 우선 지명된 수비수 김현우와 미드필더 김규형이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로 임대 이적했다.
- ▲ 한국OB축구회는 제12대 회장으로 최길수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선출했다.
-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표팀 박윤기(고양시청)가 브리온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